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고심 커지는 트럼프

‘레드라인’ 제시한 美...이란 압박 최대화하며 양보 기다려 美, 정치·경제적 부담 가중...일각선 군사행동 재개 주장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장은 이 같은 교착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8일(현지 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교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가 보도했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추가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

누가 먼저 양보할지를 둘러싼 신경전 속에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참모 5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 공격을 감행할지, 아니면 대이란 ‘최대 압박’ 제재의 효과를 지켜볼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참모에게 “이

란 지도부에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과 잭 킨 전 육군 대장,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이크 티센 등 행정부 밖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국기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라. 문제는 이란 정권과 그들의 행동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란의 최근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이란의 제안을 논의했다.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 미국이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의 ‘중간 합의’를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핵 프로그램 등 복잡한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제안이 핵 협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

사실상 뒤로 미루는 것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겨냥해 금융기관과 해운회사, 심지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업체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서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란의 남아바진 석유 산업은 생산을 중단하기 시

작하고 있다”며 “석유 생산은 곧 붕괴될 것이고, 그다음은 이란의 석유 부족 사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State of Collapse)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그들은 지도부 상황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국들이 제재를 통해 이란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조치가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를 34%로 재집권 뒤 최저 수준”

로이터 여론조사...‘생활물가 대응’ 긍정평가는 22%에 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번째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란전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4~27일 나흘간 미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3.0%p)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5~20일 조사(36%) 때보다 2%p 하락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22%만이 생활비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이 역시 직전 조사(25%) 때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전후 이뤄졌다. 대다수 응답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집됐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인들은 생활비 문제와 이란과의 ‘인기 없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란군 “전쟁 끝나지 않아...새 무기로 새 표적 공격”

이란군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해 이전과 같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표적 목록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이어 “적들이 조국을 다시 침략한다면 이란과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며 “전쟁이 멈추고 전장에서 휴전과 침묵이 흐른 날 이후에도 전사와 같은 신중함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목표를 갱신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